

# 거침없는 클린스만호, A매치 5연승 간다

### 내일 중국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원정 경기 역대 전적 '21승 13무 2패' 압도적 우세...방심은 금물 주장 손흥민 "거친 경기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할 것"

A매치(국가대표팀 간 경기) 파죽의 5연승을 노리는 클린스만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두 번째 상대 중국과 격돌한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1일 오후 9시 중국 광둥성의 선전 유니버시아드 스포츠센터에서 중국과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2차전 원정 경기를 펼친다.

중국과 만나는 클린스만호의 기세는 어느 때보다도 매섭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3, 6월 A매치 기간 2무 2패에 그쳤던 대표팀은 9월부터는 제대로 반등한 모양새다.

9월 A매치 첫 경기인 웨일스전에서 0-0으로 비긴 클린스만호는 2차전 사우디아라비아전(1-0)을 시작으로 4연승을 달리고 있다.

안방에서 열린 10월 A매치 기간 튀니지(4-0), 베트남(6-0)을 연파한 대표팀은 지난 16일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싱가포르와 치른 북중미 월드컵 예선 1차전에서도 5-0 대승을 거뒀다. 특히 최근 세 경기에서 15골을 몰아치는 화력을 과시 중이다.

최근 연습 상대가 클린스만 감독 부임 초기에 만난 중남미 팀보다 전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후반에 내려앉은 팀을 적절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국 역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79위로, 우리나라(24위)보다 크게 떨어지는 팀이다. 그

래도 최근 맞붙은 아시아 팀 가운데 베트남(94위), 싱가포르(155위)보다는 강팀으로 평가된다.

역대 전적은 한국이 21승 13무 2패로 압도적인 우세다. 중국 언론 등에서 '공한중(恐韓症)'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2017년 동아시아축구연맹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경기에서 중국과 2-2로 비긴 이후 3경기에서는 모두 이겼다.

최근 승리는 지난해 7월 열린 동아시아컵 1차전으로, 당시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은 전월 국내파로 선발 명단을 꾸려 3-0 완승을 챙겼다.

황선홍 감독이 이끈 아시아게임 대표팀은 지난 10월에 열린 항저우 대회 8강전에서 내내 주도권을 쥐고 몰아친 끝에 2-0으로 중국을 꺾으면서 양국 축구의 수준 차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다만 우리나라로서는 6년여 전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에 패한 경험이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율리 슈틸리케 전 감독이 이끈 당시 대표팀은 2017년 3월 23일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6차전 원정경기에서 중국에 0-1로 충격패를 당했다.

'참사 참사'로 기록된 당시 패배는 슈틸리케 전 감독의 거취 문제까지 이어졌고, 그해 6월 카타르와 최종예선 경기에서도 2-3으로 패하면서 결국 경질을 피하지 못했다.

클린스만호는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떠났다. 거칠기로 유명한 중국과 원정 경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1차전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손흥민(7번)이 골을 넣은 뒤 이강인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를 앞둔 대표팀은 차분한 태도로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주장 손흥민(토트넘)은 지난 16일 싱가포르와 경기 후 취재진에 "우리가 강팀과 경기할 때 거칠게 하고자 한다. 아시아팀이 우리와 경기할 때는 거칠게 하려고 할 것이다. 화가 나게 하고, 답답하게 만

드는 게 상대 전술이 될 수 있다. 휘말리지 않고 우리 플레이를 하면 된다"며 "중국이라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우리 것만 잘하면 된다"고 밝혔다.

중국을 지난 6월부터 아시아 팀과 7경기에서 4승 1무 2패를 거뒀는데, 미얀마(158위·4-0), 팔레스타인(96위·2-0), 베트남(94위·2-0), 태국(112위

·2-1)은 꺾었으나 시리아(96위·0-1)와 우즈베키스탄(73위·2-1)에는 졌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137위)와는 1-1로 비겼다. 최근 1년간 FIFA 랭킹 50위 이내 강팀과는 맞붙은 적이 없다.

## 황선우,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 '시동'

### 2024 수영 대표선발전 23일 개막 김우민·이호준·백인철 등 총출동

황선우(20), 김우민(22·이상 강원도청), 이호준(22·대구시청) 등 한국 수영 경영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2023년 마지막 대회에서, 2024 세계수영선수권 출전권 획득을 위해 역영한다.

대한수영연맹은 23일부터 28일까지 경북 김천실내수영장에서 2024년 수영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를 연다.

내년 2월에 열리는 2024 카타르 도하 롱코스(50m) 세계선수권과 2~3월에 벌이는 태국 방콕 실내무도아시아게임(쇼트 코스 25m) 출전 선수를 뽑는 대회로 국제수영연맹 A기록을 통과하며 종목별 2위 안에 들면 도하 세계선수권 출전권을 손에 넣는다.

종목에 A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1명이면 1명만 세계선수권에 나선다. 3명 이상이면 상위 2명에게만 출전권이 주어진다.

A기록을 통과한 선수가 없는 종목에는 대한수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제 경쟁력과 국제대회 입상 가능성' 등을 살펴 세계선수권에 나설 선수를 선발할 수 있다.

황선우에게는 이번 선발전이 세계선수권 3회 연속 메달 획득 도전의 출발점이다.

황선우는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에서 1분44초47로 2위에 올랐고, 올해 7월 2023 후쿠오카 대회에서는 1분44초42로 동메달을 따냈다.

롱코스 세계선수권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따낸 한국 수영 선수는 황선우, 단 한명뿐이다.

황선우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1분44초40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수영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선우(오른쪽)와 동메달을 획득한 이호준(왼쪽). /연합뉴스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기도 했다.

도하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A기록은 1분47초06으로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황선우는 "종목별로 나라도 2명만 출전할 수 있다. 한국 남자 자유형 수준이 올라와 대표 선발전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고 자만을 경계했다.

실제 올해 3월 열린 2023 경영 국가대표 선발전 대회 남자 자유형 200m에서는 황선우가 1분45초36, 이호준이 1분45초70, 김우민이 1분46초10으로, 3명이 A기록을 통과했다. 후쿠오카 세계선수권 A기록도 1분47초06이었다.

경영 대표 선발전이 열리는 내내 '항저우 아시아

게임 메달리스트'도 볼 수 있다.

아시아게임 3관왕 김우민은 23일 자유형 1500m, 25일 800m, 27일 200m, 28일 400m에 출전한다. 황선우는 25일 자유형 100m, 27일 자유형 200m 결승을 치른다.

남자 접영 백인철(부산시중구청), 평영 최동열(강원도청), 배영 이호주(서귀포시청), 여자 개인혼영 김서영(경북도청)과 평영 권세현(안양시청)도 도하 세계선수권 출전권 확보를 노린다.

다이빙 대표선발전은 25~27일 목포실내수영장, 아티스틱스위밍 대표선발전은 30일 김천실내수영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 변성환 감독 "U-17 월드컵 전패 내 탓"

### "결과보다 선수들 성장 중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을 전패로 마감한 대표팀의 변성환 감독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고 밝혔다.

변 감독은 지난 18일 대회 조별리그 E조 최종전인 부르키나파소와 경기를 마치고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3경기다 우리가 준비한 것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대회였다"며 "이번 대표팀의 결과는 방식의 공격 축구를 시도하지 않고, '선수비 후역습'을 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절대 우리 선수들의 실패는 아니다. 감독인 나의 실패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변 감독이 이끈 U-17 대표팀은 미국(1-3), 프랑스(0-1), 부르키나파소(1-2)에 차례로 져 아쉽게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했다.

한국이 이 대회에서 조별리그 탈락한 것은

2007년 대회 이후 16년 만이고, 조별리그에서 승점 1도 따내지 못하고 대회를 마친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변성환호는 세계 강호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공격 축구를 펼쳐 역대 최고인 8강 너머의 성적을 내려고 했으나 수비 불안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변 감독은 '결과가 선수들의 성장보다 중요하냐'는 현지 취재진 질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만 생각했다면 짧은 패스로 만들어 가는 방식의 공격 축구를 시도하지 않고, '선수비 후역습'을 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론 좋은 축구를 하면서 결과까지 따랐다면 선수들의 성장이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우리 선수들은 충분히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지도자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앞으로 더 좋은 지도자, 한국 축구 발전에 더 기여하는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한국 럭비, 2024 파리 올림픽 본선행 좌절

2020 도쿄 올림픽에 이어 2024 파리 올림픽도 본선 진출을 노렸던 한국 럭비의 도전이 아쉽게 좌절됐다.

이명근 감독이 이끈 7인제 럭비 대표팀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일본 오사카의 요도코 사쿠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최종 5위로 마쳐 본선행에 실패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인천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의 쾌거를 달성했으나, 아쉽게 2회 연속

본선행은 이루지 못했다.

18일 열린 조별리그 A조 3경기에서 우리나라는 중국(29-19), 인도(43-0)를 꺾었으나 일본에 0-34로 완패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인도를 잡았지만, 중국전에서 14-21로 이번의 패배를 당하며 2승 1패가 됐다.

마침 중국도 인도를 꺾은 터라 세 팀이 모두 2승 1패로 승점이 같아졌으나, 골 득실에서 우리나라가 3위로 밀리면서 4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톱 투 미
- 2관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 3관 헝가리: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 4관 프레디의 피자 가게, 톱 투 미 헝가리: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 5관 30일
- 6관 더 마블스, 프레디의 피자 가게
- 9관 소년들, 톱 투 미, 누노멀
- 7관 싸네카를 더 마블스
- 8관 싸네카를 프레디의 피자 가게, 금의 나라 물의 나라, 여귀교-저주를 부르는 게임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1-01(수) ~ 2023-11-30(목)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문화산책**

2023년 광주상설공연(11월)

일시 : 2023-12-03(일) 오후 4시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